



## 나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 타인의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나의 건강과 아내의 건강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이젠 타인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 되었다. 6두가 50두가 되고 300두가 됐다. 초기 유통망은 회사 동료가 전부였지만,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전화로 직접 차를 타고 모이게 하는 사업가가 되었다. 그가 (사)한국양록협회 정재식 이사이다. 1월엔 대봉시습농장 정 재식 사장을 만나 그만의 사슴 사랑이야기를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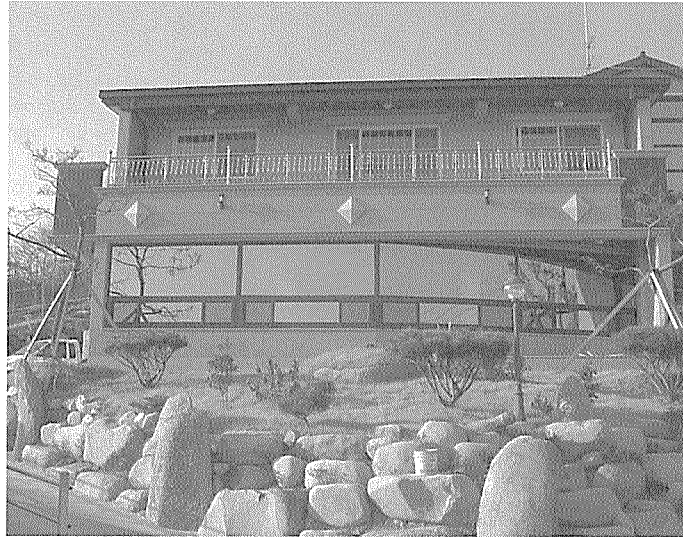
양록업도 이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타 측종을 보면 능가 단결하고 협히로 모이기를 힘써 어떤 사업이든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양록인은 일어나야 한다.

### 나와 가족을 위해 시작한 양륙 사업

정 사장이 사슴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였다. 결혼 후 정 사장 내외는 건강이 나빠지게 되었다. 한약방에서 처방으로 녹용을 받은 게 사슴과의 인연이 되었다. 그러나 비용은 만만치가 않았다.

당시 정 사장은 작은 전기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었다. 당시 비싼 녹용을 먹을 수 없어 직접 사슴을 기르기로 마음먹고는, 작은 농장을 부업으로 경영하게 되었다.

정 사장은 6두 꽃사슴을 구입해 애지중지하며 사육했다. 그런 사슴이 지금은 출하하고 남은 사슴



우 위험합니다. 후대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단 한 두를 구입하더라도 우수한 혈통의 사슴을 구입

*“사슴 경영의 핵심은 혈통입니다.”*

23년째 사슴경영을 하고 있는 정 재식(52세)사장은 사슴 경영에 있어서 혈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한다. 좋은 혈통의 사슴이 후대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진주 시 대곡 면 와룡리에는 정 사장이 23년째 경영하고 있는 ‘대봉 사슴농장’이 있다. 대봉 사슴농장을 찾으면, 깔끔한 대리석 건물의 자택이 먼저 눈에 띈다. 2층으로 지어진 자택은 1층에는 녹용을 구입하기 위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설치해 놓고, 2층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놨다.

만도 156두(꽃사슴 102두, 엘크 50두, 대륙 수사슴 순종 1두)나 된다. 사슴에 대해 알고자, 주말이면 전국에 있는 사슴 농장이라면 찾아가 일도 해 주고 사육의 실전을 익혔다. 여기에서 알게 된 사실이 혈통의 중요성이라나다.

“초기 농장을 경영할 때 규모만을 생각해서 두 수만 늘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

하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득이라 할 수 있죠.” 라고 말하면서 “유통을 뚫는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전 당시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조금씩 판매를 하며 유통망을 형성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입소문에 의해 판로는 확장 돼 갔습니다.” 라고 국내 유통망의 어려움을 덧붙였다.



### 사슴은 나의 인생

정 사장에게 있어서 사슴은 제 2의 인생을 살게 해준 동물이다. 그래서 그런지 사슴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남다르다.

처음 6두의 사슴은 300평에 사육이 됐다. 사슴의 야생의 습성이 있어서 우리가 작을 경우 위생과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판단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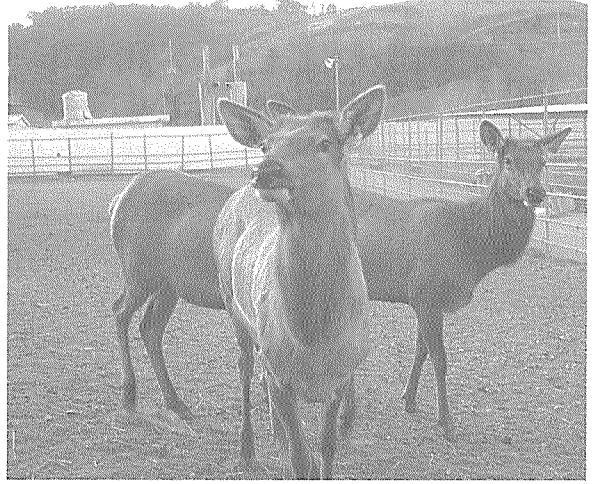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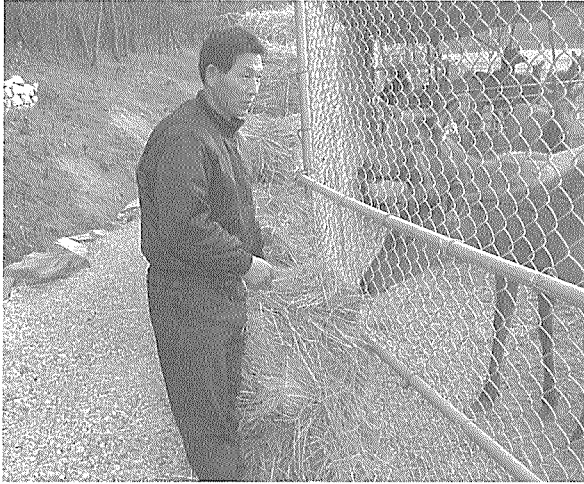
이런 정 사장의 마인드는 현 4천 평의 농장 규모를 일궈 냈고, 300두가 넘는 사슴을 사육하는 농장주가 되었다.

정 사장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녹용이 워낙 비싸 돈 주고 사먹지 못해 부업으로 사슴을 기르면서 건강을 챙겼는데 지금은 전업이 되어 사슴이 내 제2의 인생이다”며 사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대봉농장은 가축의 배설물로 인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 아침·저녁의 철저한 바닥 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내 집이 깨끗해야 하듯 사슴의 집도 마찬가지란다. 정 사장은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농장으로 나온다. 그리고 4000평의 농장을 그만의 방법과 노하우로 혼자 관리 한다.

“양록업을 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서 일이 힘들지 않아요. 다른 일도 같겠지만 이 일은 내 건강뿐만 아니라, 남의 건강도 지켜 주니 참 좋은 사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 양육업에 대한 바람이라면...

“이젠 양육인이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타 축종을 보면 농가가 단결하고 협회로 모이기를 힘써 어떤 사업이든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우리 양육이 그래야 할 때라고 봅니다.” 라며 생각의 변화를 강조한다.

하나가 될 때 관철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양육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확신에서 이다.

“양육 산업의 발전은 전문성을 낳게 합니다. 양육의 전문성은 양육인들의 합으로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 양육업이 부업이 아닌, 본업으로 전환되어 한국 양육 산업은 발전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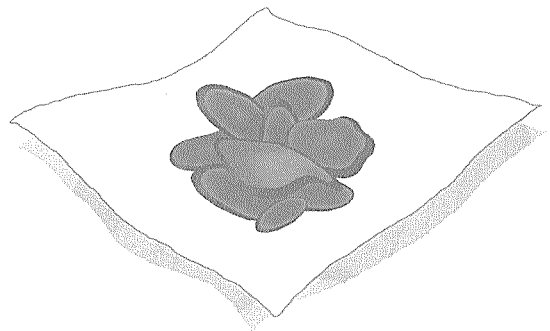
### 2006년은 사슴개량에 주력

녹용은 누구에게나 좋은 보약이 된다.

‘어린이가 녹용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옛말이 오히려 녹용의 가장 윗부분인 분골은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성장호르몬이 많아 성장하는 어린

이들에게 좋다.

중대는 4~50대 어른들에게 좋고 하대는 6~80대 노인 분들에게 좋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녹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약이다.



정 사장은 앞으로 더 좋은 혈통의 사슴을 생산하기 위해 올해는 좋은 품종의 종목을 구입하는 것이 작지만 큰 계획이다.

품종이 좋은 사슴 사육으로 질 좋은 녹용을 생산하고 싶다는 정 사장의 새해 복안에서 양육 산업의 미래를 그려본다.